C - 10 - 2006

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

2006. 12.

한 국 산 업 안 전 공 단

코드개요

- 작성자 : 송 효 근
- 제·개정 경과
- 1998년 05월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1998년 09월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11월 KOSHA Code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- 2006년 12월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- 관련규격
- 노동부고시 제2005-35호(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)
- 노동부고시 제2003-18호(위험기계·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규정)
- 일본건설업 노동재해 방지협회 : 비계조립 작업안전
- 사단법인 한국건설가설협회 : 가설공사 표준시방서
-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제6편 제2장
- 노동부고시 제2005-35호(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)
- 노동부고시 제2003-18호(위험기계・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규정)
- 코드적용 및 문의

이 코드에 대한 문의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문기술실 (TEL 032-5100-500, FAX 032-512-8315)로 연락하여 주십시오.

○ 공표일자 : 2006년 12 월 31 일

○ 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

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(이하 "안전규칙"이라 한다) 제6편 제2장(비계)의 규정에 의하여 강관비계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강관비계를 설치 및 사용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비계"라 함은 구조물의 외부작업을 위해 근로자와 자재를 받쳐주기 위해 임시 적으로 설치된 작업대와 그 지지구조물을 말한다.
 - (나) "강관비계"라 함은 강관을 이음철물이나 연결철물(크램프)을 이용하여 조립한 비계를 말한다.
 - (다) "비계기둥"이라 함은 비계를 조립할 때 수직으로 세우는 부재를 말한다.
 - (라) "띠장"이라 함은 비계기등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.
 - (마) "장선"이라 함은 쌍줄비계에서 띠장 사이에 수평으로 걸쳐 작업발판을 지지하는 가로재를 말한다.

C - 10 - 2006

- (바) "교차가새"라 함은 강관비계 조립시 비계기둥과 띠장을 일체화하고 비계의 도괴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비계 전면에 X형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- (사) "벽연결 철물"이라 함은 비계를 건축물의 외벽에 따라 세울 때 이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외벽과 연결하는 재료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, 안전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강관비계 작업의 준비와 관리

4.1 준비

- (1) 작업계획, 작업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비계의 조립도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가) 비계에 사용하는 재료, 수량
- (나) 비계의 치수(높이, 길이, 폭)
- (다) 건조물의 상황과 건조물 외벽과 비계 사이의 틈 간격
- (라) 사양(출입구, 벽 연결, 안전난간, 계단과 계단참 등)과 위치
- (마) 보강방법(출입구, 단부, 우각부 등)
- (2) 작업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(가) 부지내 공지의 상황(자재의 적치장소 등)
 - (나) 재료반입의 출입구 위치, 넓이
 - (다) 담, 수목, 우물 등 장애물의 유무
 - (라) 가스, 수도, 전기 등의 배관 및 배선계통의 위치와 폐쇄의 확인 및 매립상황
 - (마) 인접건축물 등의 상황
 - (바) 가공선로의 방호상황

C - 10 - 2006

- (사) 주변도로의 상황(교통량 및 도로의 폭등 각종 교통규제 포함)
- (3) 재료의 반입방법, 반입시기 및 적치장소(임시보관소 포함)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(4) 크레인 등의 운전자, 형틀공, 철근공, 도장공 등 관련 직종 기능공과 작업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

4.2 관리

- (1) 작업관리를 위하여 근로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.
- (가) 경험의 정도와 건강상태
- (나) 숙련자와 미숙련자를 적절하게 편성
- (다) 고령자와 연소자 또는 고·저혈압, 약시, 난청 등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는 고소작업 및 위험작업에 투입금지 등.
- (2) 사용하는 기기·공구 등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며, 불량공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정비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.
- (3) 복장, 안전모, 안전대 등은 바르게 착용하도록 항시 유의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장소의 상황과 작업순서 등은 가능한 그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지시하여야 한다.
- (5) 출입금지 장소에는 울타리, 로우프, 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출입제한을 표시하고, 필요에 따라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.

5. 강관비계의 재료

5.1 일반

C - 10 - 2006

- (1) 강관비계의 조립도에 기초하여 조립에 필요한 부재별 수량의 반입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.
 - 예) 비계용 강관, 체결 및 이음철물, 고정형 받침철물, 벽 연결 철물, 받침 널(받침판), 작업 발판 등의 조립용 부재와 못 등 필요한 부재
- (2) 반입된 재료는 『산업표준화법』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또는 노동부고시 제 2003-18호 위험 기계·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 제15편 가설기자재 성능검 정규격(이하 "성능검정규격"이라 한다)에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하고, 불량품의 혼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재사용 부재의 사용여부는 KOSHA Code C-01(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)에 따른다.

5.2 작업발판

- (1) 작업발판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나 목재 또는 합판을 사용하며, 기타 자재(강재)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발판이 제재목인 경우는 장섬유질의 경사가 1:15 이하로서, 충분히 건조(함수율 15~20 퍼센트 이내)된 것을 사용하며 변형, 갈라짐, 부식 등이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.
- (3) 제재목 작업발판의 강도상 결점은 다음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 - (가) 발판의 폭과 동일한 길이 내의 결점치수 길이의 총합은 발판폭의 1/4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(나) 결점 개개의 크기가 발판의 중앙부에 있는 경우 발판 폭의 1/5, 발판의 갓부분에 있을 때는 발판폭의 1/7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(다) 발판의 갓면에 있을 때는 발판두께의 1/2을 초과하지 않을 것
 - (라) 발판의 갈라짐은 발판폭의 1/2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철선이나 띠철로 감는

등의 방법으로 보강할 것

삼송, 전나무, 가문비나무

- (4) 제재목 작업발판의 두께는 3.5 cm 이상, 폭은 40 cm 이상, 길이는 3.6 m 이내이 어야 한다.
- (5) 작업발판은 하중과 간격에 따라서 응력의 상태가 달라지므로 <표 1>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허용응력도 목재 종류	압축	인장 또는 휨	전단
적송, 흑송, 회목	120	135	10.5

105

7.5

90

<표 1> 목재 작업발판의 허용응력 (단위: kgf/cm²)

6. 안전작업사항

- (1)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비계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적절한 작업복과 안전대,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3) 비계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주의사항 등의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(4) 비계에서 근로자가 이동 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.
- (5) 비계작업 근로자는 동일 수직면상의 상ㆍ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6) 폭풍·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.

C - 10 - 2006

- (7)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지 또는 비계의 조립·해체·변경 후 그 비계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,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.
- (8)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.
- (9) 조립·해체 및 변경작업의 작업구역 내에는,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.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(10) 재료나 공구의 낙하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, 낙하물 재해위험의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선반 설치 등의 낙하재해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(11) 비계의 내부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비계기둥의 외부로 신체의 일부가 돌출되는 작업(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, 낙하물 방지망의 조립과 해체작업 등)을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12) 비계내부에서 중량물(25kg 이상) 또는 장척물을 운반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 인력 운반을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.

7. 조 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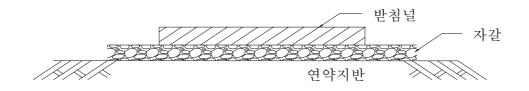
7.1 기초

(1) 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고, <그림 1>과 같이 깔판(받침널) 은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> 깔판(받침널)의 양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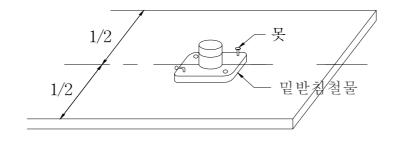
(2) 되메우기를 한 장소나 연약지반에는 <그림 2>와 같이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.



<그림 2> 연약지반의 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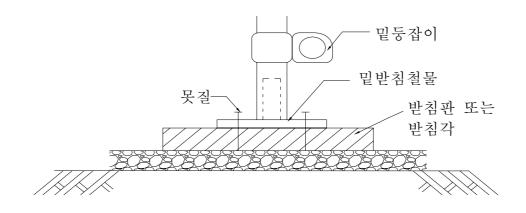
7.2 밑받침철물과 밑둥잡이

(1) 밑반침철물은 깔판(받침널)이나 받침목의 중심에 정해진 비계기둥 간격(1.8 m 이하)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<그림 3>과 같이 못으로 3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.



<그림 3> 밑받침철물의 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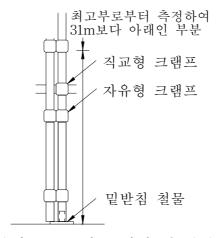
(2) 비계기둥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밑둥잡이를 설치하며, 가능한 <그림 4>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4 > 밑둥잡이의 설치

7.3 비계기둥

- (1) 비계기등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.5 m 내지 1.8 m, 장선방향에서는 1.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비계기둥은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비계기등의 최고부로부터 31 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등은 <그림 5>와 같이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조립하여야 한다. 단, 브라켓 등으로 보강하여 그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

<그림 5> 최고부로 부터 31 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

C - 10 - 2006

- (4) 비계기등의 연결은 전용 연결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결위치가 일직선 또는 동일축 내에 집중되지 않도록 길이가 서로 다른 강관을 상호 사용하여 조립 하여야 한다.
- (5)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 kgf(3.92 KN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6)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(6.86 KN) 이내이어야 한다.
- (7)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은 추락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30 cm 이하로 조립하여야 한다.
- (8)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틈 간격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.

7.4 띠장

- (1) 띠장의 수직간격은 1.5 m이하로 하여야 한다. 단,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.
- (2) 비계기등과 띠장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(직교형)로 체결하며, 300~350 kgf·cm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,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 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크램프로 결속하여야 한다.
- (4)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 cm 이상 엇갈리게 하여야 한다.

7.5 장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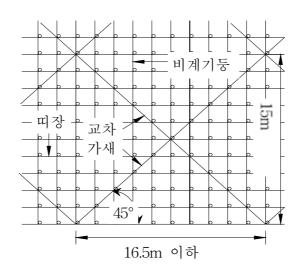
(1) 장선의 간격은 1.5 m 이하로 설치하고,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 기둥에 결속하며,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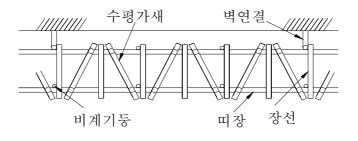
C - 10 - 2006

- (2) 비계기등과 장선의 체결은 반드시 전용 크램프(직교형)로 체결하며, 300~350 kgf·cm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이음하여 설치하는 경우,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부분이 $10\sim20$ 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 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.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7.6 가새

- (1) 가새는 비계의 외측면에 45°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,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에 체결한다.
- (2) 가새와 비계기등과의 교차부는 전용 크램프(자유형)로 체결하며, $300\sim350 \text{ kgf} \cdot \text{cm}$ 이상의 조임토크로 균일하게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비계가 몇층 조립된 시점에 비계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가서 또는 교차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장선 방향 가새는 비계의 양 끝에 있는 비계의 각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.
- (5) 수평 가새는 <그림 6>과 같이 벽연결 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마다 설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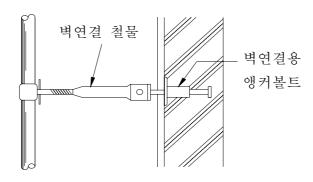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6> 수직 및 수평가새 설치

7.7 벽연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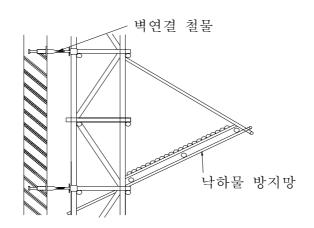
- (1) 벽 연결은 수직방향 5 m 이하,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벽연결의 설치위치는 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,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,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연결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벽 연결의 설치장소에 기둥이나 띠장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띠장을 설치하고 이 띠장에 벽 연결을 설치하며, 이러한 경우 띠장의 중앙에는 벽 연결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.

(4) 벽연결 철물은 전용철물을 사용하며, 철물시공의 양부가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조본체 등에 <그림 7>과 같이 확실히 매립하여야 한다.



<그림 7> 벽연결 설치용 앵커(Anchor)의 매립

- (5) 임시 벽연결을 설치한 경우 가능한 빨리 본 벽연결로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외측에 공사용 Sheet 등을 붙일 경우에는 통상의 간격보다 더욱 조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비계에 낙하물방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낙하물방지 설비의 본체 들보재의 설치 장소에 압축력과 인장력이 작용하므로 <그림 8>과 같이 벽연결 철물을 설치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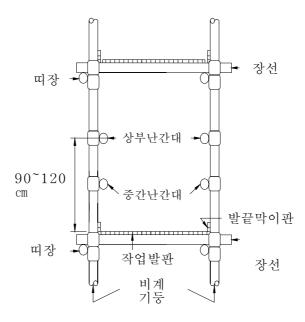
<그림 8> 벽연결 보강(낙하물방지 설비)

7.8 작업발판

- (1) 높이 2 m 이상의 고소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립하는 비계의 모든 층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작업발판 재료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단 차이가 1.5 cm 이하이어야 한다. 연결부의 중앙부를 장선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하고, 각각의 발판이 장선으로부터 최소 20 cm 이상 돌출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여야 한다.
- (5) 작업발판 끝 부분의 돌출길이는 10 cm 이상 20 cm 이하로 하여야 한다.
- (6)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발판을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7.9 안전난간

- (1) 안전난간은 비계의 통로와 끝단의 단부 및 작업발판의 측면 등 추락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비계에 설치하는 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3) 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, 미끄러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,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.
- (4) 안전난간은 <그림 9>와 같이 설치하며, 상부난간대는 바닥면,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 으로부터 90 cm 이상, 120 c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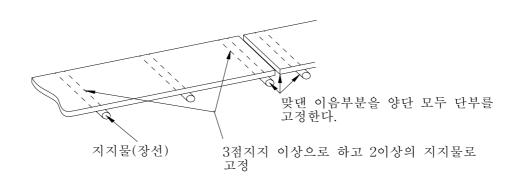
<그림 9> 안전난간의 설치

- (5)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되어야 한다.
- (6)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7)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(8)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,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2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.
- (9) 난간을 안전대의 로프, 지지로프, 서포트, 벽 연결, 비계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 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.
- (10) 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어 적치하거나,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말아야 한다.
- (11) 안전난간은 임의의 지점과 방향으로 움직이는 100 kgf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.

(12)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의 형편상 부득이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방망을 설치하거나,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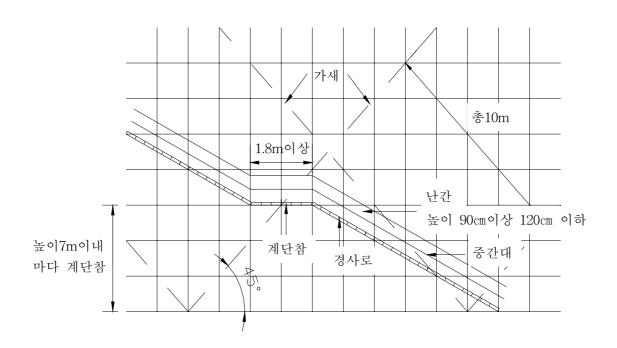
7.10 경사로

- (1) 경사로의 폭은 최소 90 cm 이상으로 한다. 경사로의 보가 되는 사재는 비계기둥 및 장선에 전용철물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(2)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.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하여야 한다.
- (3) 경사로 발판의 이음은 <그림 10>과 같이 맞댄이음을 원칙으로 하며, 겹침 이음하는 경우 겹침 길이의 중앙부가 장선의 상부에 오도록 하고, 겹침 길이는 20cm 이상으로 한다.



<그림 10> 경사로 발판의 이음

(4) 경사로에는 높이 7 m이내 마다 <그림 11>과같이 폭 90 cm, 길이 180 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고, 계단참과 경사로의 연결부는 단높이의 차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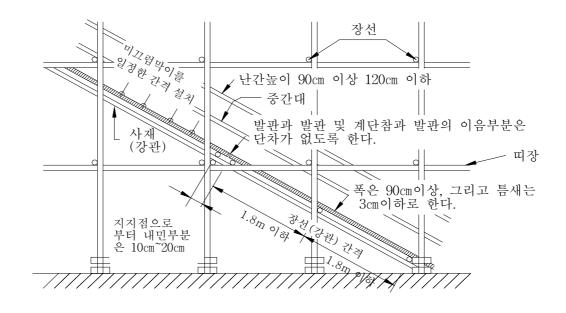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11> 경사로 계단참 설치

- (5) 경사로의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며, 통로에 근접한 고압전선 등이 있을 때에는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방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- (6) 경사로의 양 측면 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 단, 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.
- (7)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불용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,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안전한 통로를 확보하여야 한다.
- (8) 경사각은 30° 이하 이어야 하며,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다음 <표 2> 및 <그림 12>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경사각	설치간격	경사각	설치간격	
30°	30cm	22°	40cm	
29°	33cm	19°20′	43cm	
27°	35cm	17°	45cm	
24°15'	37cm	14°	47cm	

<표 2> 미끄럼막이 설치간격



<그림 12> 미끄럼방지 장치 등의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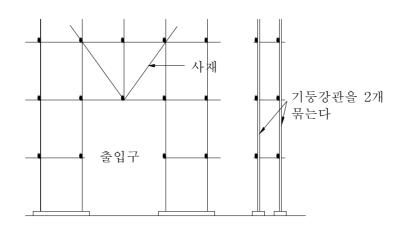
- (9) 경사로의 발판면에는 연결용 못이나 철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며, 통로에는 정상적인 통행에 충분한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10) 경사로의 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

7.11 출입구 보강

(1) 비계의 출입구 등은 사재에 의한 보강 및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

강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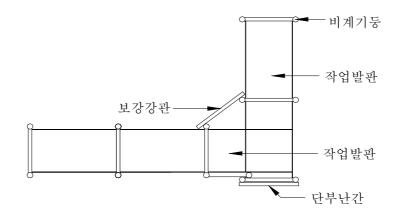
- (2)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하여야 한다.
- (3) 출입구 상부의 비계 전 · 후면에는 사재로 <그림 13>과 같이 수평재를 보강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3> 출입구 보강

7.12 우각부 보강

- (1) 우각부는 개구부를 없애기 위해 양변의 비계기둥을 근접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.
- (2)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(크램프)로 체결하여야 한다.
- (3) 우각부는 개구부로부터 추락방지를 위해 <그림 14>와 같이 작업발판을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4> 우각부 보강

7.13 낙하물 방지설비

- (1) 비계에 설치하는 방호선반은 KOSHA Code C-03(낙하물 방호선반 설치 지침)을 참 조한다.
- (2) 비계에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은 KOSHA Code C-02(낙하물방지망 설치지침)을 참조한다.

8. 점검보수

조립 완료후 비계 전체를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시기는 매일, 악천후가 끝난 후, 작업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,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.

- (1)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
- (2)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
- (3)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

- (4) 손잡이의 탈락여부
- (5) 비계기둥의 침하 · 변형 ·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

9. 해체

- (1) 해체작업 이전에 작업발판 등에 부재, 공구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며, 조립의 역순으로 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해체작업 이전에 벽연결, 작업발판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해체순서를 검토, 변경하여 그 결과를 해체작업 근로자 전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.
- (3)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(4)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5) 해체부재의 하역은 크레인 등의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인력하역인 경우 손으로 건네거나 망, 포대 등을 사용하여 하역하고 투척하는 행위는 금지하여야 한다.
- (6) 벽연결, 가새는 가능한 나중에 해체하며, 필요한 경우 임시가새,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